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최지혜*, 박미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Jiheha Choi(jiheachoi@yonsei.ac.kr)*, Mi-Jeong Park(mijeong@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이다.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 139명을 연구대상으로, 2012년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양적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질적자료는 면담 녹취록을 Strauss & Corbin(1990)의 개방코딩과 범주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96점이었고, 전공 선택이유($F=6.23$, $p=.003$), 학업 부담감($F=4.47$, $p=.013$) 및 지각된 학업성취도($F=6.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 경험으로는 '학업 부담감 극복', '취업 부담감 극복', '다양한 지지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여' 및 '질 높은 실습교육'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하여 학업과 취업 부담감 경감, 지지자원과의 연계,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의 계획 및 질 높은 실습 교육의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대학생활 적응 | 트라이앵글레이션 |

Abstract

This is a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study to investigat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139 associat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5 to November 17, 2012.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20.0.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open coding and categorization. Mean value for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2.96.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nursing major ($F=6.23$, $p=.003$), study loading ($F=4.47$, $p=.013$), and perceived learning achievement ($F=6.87$, $p=.001$). 'Burden on study loading', 'Burden on job finding', 'Securing diverse support', 'Diverse extra-curricular', and 'Qualified practicum education' were extracted from the qualitative data. Results suggest diverse program development to decrease study loading, increase chances to connect with supporters, provide variou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guarantee qualified practicum education are important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keyword : | Nursing College Student | Adjustment to College Life | Triangula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에게 있어 학교생활 적응은 주요한 개인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대학교육 기관의 주요 관심사이다[1].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밀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자기주체성과 신념 등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2].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은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해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정체성 확립과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이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3].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으로부터 받아오던 엄격한 통제로부터 갑작스럽게 벗어나게 되고,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며 다양한 역할기능 및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여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2].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 및 실습[4], 다양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행위 수행, 윤리적인 행위의 실천 및 국가시험이라는 다양한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5]. 이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스스로의 능력, 역할, 책임, 사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적응 정도를 낮춘다[6]. 간호대학 교육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폭을 넓히고자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통해 대학생을 교육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고유한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7]. 그러므로 간호대학 교육과정 동안의 대학생활 적응은 예비 간호사로서의 간호대학생의 성인초기의 발달과업 달성뿐 아니라, 미래의 능력 있고 높은 임상 적응력을

갖춘 신규 간호사의 배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간호교육 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많은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타 4년제 간호대학과 병합하여 일원화된 간호교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이러한 간호교육의 구조적·제도적 변화는 병합된 학제를 아우를 수 있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의 도입 및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요구한다[9]. 특히 4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3년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지, 임상실습 지도자, 교원수 등의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론 및 실습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9], 4년제에 비해 학습 부담감과 국가시험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인다[10][11]. 3년제 간호대학생의 이와 같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다른 전공 대학생들 및 4년제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문제에 대해 간호교육 기관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특징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Baker와 Siryk[12]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주로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도구는 대학생활 적응을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및 대학환경적응의 4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한 후, 각 점수를 합산하여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양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론과 실습 교육이 동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학문의 고유한 특성과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측정도구를 이용한 양적연구만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연구 방법으로 평가하고, 더불어 설문지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적인 경험을 면담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보다 타당한 이해

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 혹은 연구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13], 면담과 참여자 관찰과 같은 비구조적인 기술과 함께 표준화된 설문지나 관찰과 같은 구조적 기술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자료조사 방법의 장점과 약점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연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조사하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의 사실적인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3년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분석하여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다.

둘째,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3년제 간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양적연구는 1, 2, 3학년 재학생 전수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대학생 전수(총 155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 한 139명(89.7%)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연구는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학년에 따라 다르다는 이우성[14]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부에서 학년별로 3~4명씩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 한 3개 학년 총 10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여 갈등과 불균형 등을 초래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15],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2]가 개발하고 현진원[16]에 의해 번안되어진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총 67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으로는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수업, 시험) 적응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사회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불편감 정도를 의미하고, 대학환경적응은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유대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현진원[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4.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양적자료의 수집은 201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절차는 학과장의 허가와 협조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적자료의 수집은 양적자료의 수집으로 인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양적자료 수집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201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학년별로 한 개씩 총 3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질문은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3년제 간호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였는가?” 등으로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경험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하였고, 질문의 배열은 일반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질문으로, 긍정적 질문에서 부정적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약 1시간 이내로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음하기 전에 토의 내용의 녹음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고 현장노트를 준비하여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화로 확인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양적자료는 PASW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검정하였다.

수집된 질적자료는 면담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한 후 Strauss & Corbin[18]의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읽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구를 따로 표시하며 코딩을 시작하였다. 코드 중에서 상호 연관된 코드들끼리 묶어 보다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범주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름을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들끼리 분석된 개념이나 범주의 명칭과 추상성의 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 20.85세의 3년제 간호대학 1, 2, 3학년 139명으로 여학생이 9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56.9%, 여가활동을 즐기지 않는 학생이 73.4%,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45.3%,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42.4%였다. 지각된 경제 상태를 중이라 응답한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고, 원활한 취업 가능성 때문에 간호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학기간 동안 심하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4.1%, 학업 성취에 대한 지각정도가 중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55.6%이었다[표 1].

2. 대학생활 적응 정도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수를 5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대학생활 적응 총점의 평량 평균은 2.96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으로는 대학환경 적응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학업적응은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9)

특성	구분	M±SD or N(%)
연령(M±SD)		20.85±3.27
학년	1학년	43(30.9)
	2학년	45(32.4)
	3학년	51(36.7)
성별	남	10(7.2)
	여	129(92.8)
종교유무*	유	78(56.9)
	무	59(43.1)
여가활동 유무	예	37(26.6)
	아니오	102(73.4)
현 거주지	집(통학)	63(45.3)
	기숙사	59(42.4)
	기타(자취 등)	17(12.3)
지각된 경제 상태	상	57(41.0)
	중	72(51.8)
	하	10(7.2)
전공 선택 이유	간호사에 대한 관심	43(30.9)
	용이한 취업	68(48.9)
	타인의 권유	28(20.1)
학업 부담감	심하다	103(74.1)
	적당하다	23(16.5)
	심하지 않다	13(9.4)
지각된 학업성취도*	상	10(7.4)
	중	75(55.6)
	하	50(37.0)

* 무응답 제외

표 2. 대학생활 적응 정도 (N=139)

측정변수	총점	M±SD	Min-Max
	하위요인		
대학생활 적응	총점	2.96±0.49	1.52-4.08
	학업적응	2.77±0.74	1.00-4.60
	사회적응	2.89±0.70	1.00-4.60
	개인-정서적응	2.86±0.54	1.20-4.00
	대학환경적응	3.10±0.61	1.60-4.6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 선택 이유(F=6.23, p=.003), 학업 부담감(F=4.47, p=.013) 및 지각된 학업성취도(F=6.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공 선택의 이유에서 간호사에 대한 관심으로 전공을 선택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적당히 느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지각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N=139)

특성	구분	대학생활 적응	
		M±SD	F/t(p)
학년	1학년	2.94±0.42	.91(.404)
	2학년	2.90±0.49	
	3학년	3.04±0.54	
성별	남	3.10±0.57	.72(.399)
	여	2.95±0.49	
종교유무	유	2.98±0.45	.07(.799)
	무	2.96±0.53	
여가활동 유무	예	3.07±0.46	2.08(.152)
	아니오	2.92±0.05	
현 거주지	집(통학)	2.94±0.47	.07(.874)
	기숙사	2.98±0.52	
	기타(자취 등)	2.99±0.49	
지각된 경제 상태	상	2.83±0.49	1.11(.339)
	중	3.04±0.50	
	하	3.11±0.31	
전공 선택 이유*	간호사에 대한 관심 ^a	3.10±0.46	6.23(.003) a>b>c
	용이한 취업 ^b	3.00±0.47	
	타인의 권유 ^c	2.70±0.49	
학업 부담감*	심하다 ^a	2.90±0.48	4.47(.013) a<b
	적당하다 ^b	3.25±0.46	
	심하지 않다	2.98±0.46	
지각된 학업성취도*	상 ^a	3.26±0.63	6.87(.001) a>b>c
	중 ^b	3.02±0.42	
	하 ^c	2.77±0.51	

*사후분석=Scheffe test

4. 질적자료 분석을 통한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자료 분석을 통해 23개의 개념이 추출되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4].

표 4. 질적자료 분석을 통한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

범주	개념
학업 부담감 극복	- 국가시험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기 - 수업과 방학이 빠르게 순환하는 교과과정을 잘 감당하기 및 생소한 교과목 잘 이해하기 - 과다한 분량의 과제 및 좋은 학점에 대한 압박감 이겨내기
취업 부담감 극복	-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 갖기 - 다양한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 확보 - 취업을 위한 역량 키우기
다양한 지지자원 확보	- 학급 친구 간 좋은 관계 유지하기 - 지도교수와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 - 역할모델이 되는 선배 경험 듣기 - 부모/형제/친구의 도움이나 위로 받기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여	- 동아리 활동 참여하기 - 교내, 교외 특별활동 참여하기
질 높은 실습교육	- 임상실습지로 좋은 실습 병원 확보 - 좋은 기자재가 있는 실습실 환경 - 풍부한 실습 소모품 지원 - 풍부한 실습지도 인력 - 실습 교육에 교수의 적극 참여 - 자질 있는 현장실습지도자 확보

도출된 5개의 범주는 ‘학업 부담감 극복’, ‘취업 부담감 극복’, ‘다양한 지지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여’, ‘질 높은 실습교육’이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경험에서 도출된 5개 범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업 부담감 극복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은 3년의 교과과정 내에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공 이론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이 빠른 주기로 반복되는 빠듯한 학사 일정으로 인한 버거움과 매 교과목마다 해야 하는 많은 과제나 생소한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교수의 높은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취업과 직결되는 학점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어떻게 이기느냐와 같은 학업 부담감 극복 정도가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떨어져서 학교 망신을 시키는 건 아닐지 너무 두려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 이름이 오래오래 학생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른 학과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는데, 저희는 2학년 여름방학부터 실습을 해야 해서 방학이 없어요 이론 수업할 때도 병원 실습 시간을 빼야하니깐 짧은 주 수내에 엄청 빠른 속도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대학이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대부분이라 이런 맘이 들 때 잘 버텨야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어도 낯설고 과목도 낯설고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들 듣다보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시험공부나 과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누가 과외를 해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매시간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시는데, 저희는 과제가 학점에 영향을 주니 안할 수 없잖아요 또 보고서 대충해서 제출하면 불러가서 혼나고,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공부에 대한 압

박이 심해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과제를 잘 해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 취업 부담감 극복

3년제 간호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버거운 3년의 교과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다. 특히, 취업관련 웹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취업 정보나 이미 취업한 졸업 선배들의 경험 듣기 등을 통해 자신도 졸업 후에 어엿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취업을 원하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취업 부담감을 극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간호과 졸업학생들은 다른 과 학생들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덜 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고 싶은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 이기는 하지만 일단 제 욕심을 버리면 어디든 일할 병원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어요”

“졸업한 선배들이 어느 병원에 있다, 그 병원이 일하기에 좋더라, 그 병원으로 졸업하면 와라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얼른 공부 마치고 간호사가 빨리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러면 보기 싫던 교과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펴보게 되기도 하구요”

“병원 간호사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 얘기도 들었어요 그 선배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면서 저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 뭐 버틸 만하죠”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토익 반을 운영하는데 별로 안 비싸서 한번 들어봤어요 뭐 들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않았지만 영어 공부를 했다는데 대해 혼자 뿌듯해지면서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야지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취업할 때도 지금 영어 공부해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다양한 지지자원의 확보

3년제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량 및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부담감으로 다양한 지지자원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다. 특히, 팀별 과제나 팀별 학습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습교과목에서 실습 팀원 간에

협동심이나 배려심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입학시점부터 졸업시점까지 지도 교수의 꾸준한 관심이나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심리적 위안이나 지지가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보냈던 선배들의 경험이나 방법을 자유롭게 묻고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부모나 친구, 교회 친구들의 위로도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다양한 지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저희가 실습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들 때는 같은 실습 팀원끼리 마음이 잘 맞고 잘 도울 수 있는 친구관계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실습 팀이 되면 거의 졸업할 때까지 붙어서 다녀야 하는데 서로 맘이 잘 안 맞거나 배려하지 않는 동기가 실습 팀원이면 정말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교수님을 뵈 수 있고, 또 지도교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구나하는 느낌이 들면 다른 어떤 것 보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교수님한테 말하기는 어렵고 친구들은 다 비슷한 사정이고 할 때 물어볼만한 선배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랑 같은 길을 한 두 해 일찍 겪은 선배의 살아있는 경험을 들으면 정말 피부로 와 닿아요.”

•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여

질환이 있는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해야 하는 학문적 특성 및 과중한 교과과정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타과 학생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나 학과 내 동기들과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특별활동의 참여 기회를 통해 과중한 학업부담감으로부터 잠시나마 자유를 누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병원실습에서 만나지 못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교외 활동이나 교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수업이나 과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동아리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 풀어요. 그러면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다른 고민들도 같이 풀어갈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동아리는 정말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면 좀 쉬어서 놀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교수님 한분이랑 시골지역에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한일이라고는 혈압재고 열재고 한일 밖에는 없지만 친구들이랑 실습실에서 떠들고 놀면서 실습할 때랑은 좀 달랐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간호사가 되면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나도 얼른 졸업해서 멋진 간호사가 되어야지 싶었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간호과가 일등을 했거든요. 할 때는 몸이 힘들고 지쳐 너무 하기 싫다 했는데, 하고 나서 대부분의 선배 얼굴을 알게 되고 안 친했던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니까 좋았어요.”

• 질 높은 실습교육

3년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 교육의 특성 상 높은 실습 교과목의 비중 때문에, 얼마나 질 높은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4년제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3년제 간호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좋은 기자재와 풍부한 소모품을 갖추고 있는 실습실이 있는지, 실습동안에 담당 교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습교육에 참여하는지, 현장실습지도자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현장실습지도자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3년제 간호대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질 높은 수준의 실습교육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생들은 저희보다 더 좋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지 않나요? 저희는 실습 나가는 병원이 대부분 2차 병원이나 시설들인데 서울에 있는 큰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한번은 서울에 S병원에 병문안 간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데서 실습해봤으면 정말 좋겠다하고 어찌나 부럽던지.”

“간호학 실습실에서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료들은 물품을 너무 빠듯하게 주시거나 구식 스타일의 물건을 주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아껴서 쓰지 않을 때가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병원 실습 나가서 더 좋은 물품들을 볼 때면 우리도 실습 때 이런 물품으로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비교하기는 싫지만 실습병원에 4년제 학생들도 같이 실습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실습지도 교수님들이 하루종일 실습을 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실습지도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 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다르게 가르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방법으로 일하는 간호사들도 꽤 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데로 원리원칙대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들 실습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IV. 논 의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 경험을 확인하여,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에 위치하는 대학의 여건으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

활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 전공 선택의 이유로는 약 50%가 용이한 취업이라고 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 지원동기가 취직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선행연구[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한 간호학과와 장점이 학과지원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 중 학업 부담감이 심하다고 평가한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4]과 4년제 간호대학생[5]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간호대학생이 전반적으로 과중한 학습량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2.96점이었는데, 같은 측정도구로 타 3년제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연구의 결과(3.0점)[19]와 4년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3.01점) 보다 낮은 점수이다[20]. 특히, 대학생활 적응 측정변수의 하위요인 가운데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 영역의 점수가 특히 낮았는데, 이는 타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한 박진아와 이은경[2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 가운데 약 70%가 간호학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으나 용이한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양적연구의 결과는 학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극복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지자원을 확보하는데 높은 요구를 보였던 질적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요한 지지자원으로 같은 학년의 동료, 선배, 지도교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팀별 과제나 팀별 실습 활동이 많은 간호교육의 특성[11][22]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제 학제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업 성취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운영과 학업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감감을 목적으로 동료, 선배 및 교수 등을 3년제 간호대학생의 개별 지지자원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 선택의 이유에 따라 대학생활 적

응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학생들과 용이한 취업에 대한 기대로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에서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진공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안지연과 임희경[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대학진학 시 원했던 전공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간호학과의 특성 상 졸업 후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의 신입생 선발 시 목적의식이 뚜렷한 학생을 선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간호대학생의 지도 시에는 미래 간호사로서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직업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잘 극복하는 것이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범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양적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지원하는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확신 갖기, 다양한 진로나 취업에 대한 정보 확보하기 및 취업을 위한 역량 키우기 등이 취업 부담감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질적연구 결과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외국어 능력을 비롯한 학생의 취업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내외 특별활동의 개발 및 참여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학업 성취도는 상위권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손유진[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대학생활 적응은 적당히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서 적응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아[2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3년의 교과과정 동안에 이론과 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3년제 간호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교

과과정의 재편성과 학업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질적 교육의 제공 및 학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과 같은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도움이 되겠다.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의 참여는 과중한 학업 부담감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나 다양한 경험을 통한 견문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70% 이상의 연구 대상자가 여가활동을 즐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의 교과 외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을 위한 학과 차원의 격려 및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한 제안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질 높은 실습교육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막연했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간호교육의 특성[24]과 실습지 및 실습지도자의 부족으로 질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어려운 3년제 간호대학의 실정 및 임상실습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특성[9]을 고려할 때, 학제 일원화를 표방하는 현 시점에 간호교육 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질 높은 실습교육을 위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적합한 실습 병원의 확보, 실습실 환경의 개선, 풍부한 실습지도 인력의 확보, 실습 교수의 적극적인 지도 및 자질이 있는 현장실습지도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공통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 결과 바탕으로 간호교육 기관은 실습 교육을 위한 구조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실습 지도자의 양적·질적 능력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간호대학-임상실습 기관 간 협력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기초학습 능력의 저하 및 낮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보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9]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교육 시작 전에 사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가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사례분석 학습이나 임상환경의 적응도를 높이는 시뮬레이션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상승 및 전공 교과목 학습 능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 지역 3년제 간호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타 3년제 간호대학생 및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질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학업 및 취업 관련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 효율적인 교육 방법의 적용,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접근가능하고 활용가능 한 지지자원의 연계 및 교과 외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대상자 면담에서 공통되게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3년제 간호대학의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적, 인적 실습 자원의 보충·보완을 통한 간호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조사하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경험을 분석하여, 3년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이다. 양적 연구는 2012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질적연구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양적 자료는 PASW 20.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질적자료는 면담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한 후 Strauss & Corbin(1990)의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2.96±.49점 이었다.

둘째,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 선택 이유(F=6.23, p=.003), 학업 부담감(F=4.47, p=.013) 및 지각된 학업성취도(F=6.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 경험으로는 ‘학업 부담감 극복’, ‘취업 부담감 극복’, ‘다양한 지지자원 확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참

여’ 및 ‘질 높은 실습교육’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최근 간호학계의 노력으로 3년제와 4년제로 이분화 된 학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강미선, “무용연습 환경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6호, pp.421-434, 2004.
- [2] 안지연, 임희경, “여대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1호, pp.233-239, 2005.
- [3] 한금선, “간호대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의 자존감, 건강증진행위, 가족적응도 및 스트레스 증상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78-84, 2007.
- [4]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0-68, 2009.
- [5]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02.
- [6] 한금선, 박영주, 김근면, 오연재, 진종희, 강현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자기효능감, 감정 조절, 대처방법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28-34, 2008.
- [7] 민소영,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경험”,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154-163, 2006.
- [8]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1&articleKey=2351>
- [9] 구현영, 임형석,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11-321, 2013.

[10] 한수정, “입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pp.132-146, 2000.

[11] 박복남, 박종선, 이정란,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53-164, 2009.

[12] R. W. Baker and B. Siryk, “Measur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13] E. S. Mitchell, “Multiple triangulation: a methodology for nursing sc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8, No.1, pp.18-26, 1986.

[14] 이우성, *대학생의 학습몰입,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분석: 남녀 및 학년별 차이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5] 송정애, 장정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10.

[16] 현진원,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7] A. Strauss and J. Corbin,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1990.

[18] 이규은, 하나선, 이용미, 염영희, 이정애,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자아존중감 비교”, 간호행정학회지, 제6권, 제2호, pp.165-176, 2007.

[19] 박종선, 서문숙, 박복남, “일부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생활관리프로그램의 효과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2권, 제2호, pp.39-55, 2007.

[20] 손유진, *대학생의 동아리 및 여가참여 유무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

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22] 송정애, 장정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10.

[23] 김은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4] 김춘미, 김은만,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에 의한 기본간호 현장실습교육 평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35-245, 2011.

저 자 소 개

최 지 혜(Jiheha Choi)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5년 3월 :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 of Nursing (간호학석사: Pediatric Nurse Practitioner)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연구강사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건강증진, 간호교육

박 미 정(Mi-Jeong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교육방법